

# 대림절과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김승욱 (발행인)

이 달의 표지인물에는 네덜란드 아펠도우른 (Apeldoorn) 신학대학교 셸더하위스(Herman Selderhuis) 총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세계칼빈 주의학회 회장이자 'Refo 500'의 총 책임자로, 지난 11월 6일부터 총신대학교에서 진행된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2009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칼빈 탄생 500주년 전시회에서 10만 명의 방문자가 오고, 비신자들도 많이 방문해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세계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8년 전부터 기획해 국제기구로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의 강연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그가 한국 교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종교개혁주간은 지났지만, 지난달에 국내에서 있었던 의미있는 행사라서 회원들에게 소개하고자 모셨습니다.

이번 호 특집으로는 크리스마스를 다루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Merry Christmas인가? Happy Holiday인가? 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보려고 “메리크리스마스인가? 해피홀리데이인가?”의 주제아래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탄절이 상업주의에 물들어 젊은 이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구속사적 의미를 다룬 이상규(고신대, 교회사)교수에 의하면, 이런 상업주의에 대한 비난이 이미 4세기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정일 목사의 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8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빠르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936년 『매일신보』에서 기사제목을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라고 뽑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상업화된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서구 국가나 한국이나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벽에는 빨간 모자에 빨간 선물보따리를 든 산타가 큼지막하게 걸려있고, 주일학교에서는 예배 후에 산타복장의 선생님이 선물은 나누어 주어서, 이제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인지 산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라운성(총신대, 역사신학) 교수로부터 산타클로스에 대한 교회사적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도에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 신형섭(장신대, 기독교교육과)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산타 클로스도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교육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선물 받는데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요즘에는 도심의 상가나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져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아 섭섭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서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이 반기독교 정서로 인해서 캐롤을 틀지 않고, 성탄 분위기의 장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경영연구원 박철(고려대 교수)원장은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최근의 이런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손봉호(본보 대표주간) 교수는 “애기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리지는 말라”는 서양속담을 인용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되었다고 성탄일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인류 역사에서 기원전과 후를 나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일 년 중에 한번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축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보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는 입장은 있으나, 사회문제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는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기고자의 입장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더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되는가를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이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견해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월호의 부족한 지면에 대해서는 송인규 교수께서 추천해주시는 주옥같은 서적들을 읽어서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